해남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속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예술의 등대 전시관·해풍갤러리·정원 등 조성

해남군'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의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부산, 전남 등 5개 광역시도를 포함한 남부권을 잇는 광역 관광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 목포구등대 일원에는 예술의 등대 전시관, 해풍갤러리, 정원 등을 포함한 복합 문화 관광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1908년 축조된 목포구(木浦口)등대는 대한제국기 대표적 등대이자, 이후 지어진 우리나라 등대의 기본적인 전형이 되는 등대로 2008년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인 문화재자료 제379호로 지정됐다.

2003년 새로운 등대가 건립될 때까지 95년간 육지의 관문인 목포구의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목포구등대가 위치한 화원 월래 해안은 두 개의 등대를 배경으로 서해 바다의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해넘이 명소로 꼽히고있다.

군은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통해 해남만의 독특한 해양 관광 경험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해남군의 대표 해양관광지인 오시아노 관광단지 및 우수영 관광지를 연계한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서남해안 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며"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박지원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강진 마량놀토수산시장 오는 12일 개장

풍성한 먹거리·체험·공연 등 행사 다채

강진군은 제9회 마량놀토수산시장이 12일 강진 마량항 중방파제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마량놀토수산시장은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신선한 수산물은 물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개장식은 12일 오후 2시 행사장 내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성공 기원 퍼포먼스와 함께 목포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의 현장 녹화 방송으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며, 미스터트롯2 TOP1 안성훈, 미스트롯3 TOP4 미쓰김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AI캐릭터 변환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디즈니·지브리풍의 캐릭터로 변신하는 이색 체험을 제공하며, 현장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도토리 캐리커쳐 또는 소정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장 곳곳에는 스틸데코를 활용한 다양한 포토존을 배치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와 신선한 수산물 요리 등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돼 맛있는 음식과 함께 신나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기존 관람석 중심의 공연 방식에서 벗어나 야외 테이블이 배치된 새로운 무대 구성을 도입해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마량 전망대에서는 원데이 클래스와 시음회 등 특별 이벤트가 준비 중이다. 야간에는 미디어파사드와 LED바다분수가 어우러져 마량항의 밤을 환상적으로 수놓는다.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과 연계하면 신선한 수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진=김경선 기자

무안군, 1973년 이전 주택 창고 용지 지목변경 추진

무안군은 2개년에 걸쳐(2024~2025)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및 창고 용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집중적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대지,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한해,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토지거래 제한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대상 필지 429건 중 223건을 지목변경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완료 통지를 마쳤다.

영암 달마지쌀, 프랜차이즈 얌샘김밥에 20톤 공급

거래 한 달 남짓 기간만의 성과… 전남도와 공동마케팅 주효

전남도와 영암군이 거래 1개월 만에 대한민국 대표 분식 프랜차이즈 '얌샘김밥'에 20톤의 영암 달마지쌀을 공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영암군은 전국 260개, 해외 10개 가맹점을 둔 얌샘김밥과 '농특산물 판매촉진 협약'을 맺었고, 올해 2월 25일 첫 거래를 시작한 이후 한 달 남짓 기간에 괄목할 판매 실적을 올린 것이다.

이런 성과 뒤에는 전라남도와 영암군의 전남쌀 판매 확대 공동 마케팅이 자리하고 있다.

먼저, 영암군은 얌샘김밥 가맹점에 '영암산 새청무' 문구가 새겨진 김밥 포장재를 제작·보급하는 등 지원에 나서 160개 가맹점에서 새청무 품종의 영암 달마지쌀을 사용하게 도왔다.

지난해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 전라남도는 얌샘김밥과 협약을 맺고, 올해 5월부터 전남 농특산품인 전복과 영암쌀로 만든 전복김밥을 출시하기로 했다.

나아가 전복김밥 출시에 맞춰 가맹점을 찾은 손님이 이 메뉴를 주문하면, 영암산 새청무 쌀 500g을 증정하는 판촉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공동마케팅은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기업과 지역 농특산품 판매의 물꼬를 트고, 광역단체가 마케팅을 확장해 기업의 매입량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쌀을 포함한 전남쌀은 대한민국 대표 쌀로 꼽혀도 손색이 없을 품질과 맛을 자랑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또한 현실이다. 전남과 영암군이 함께 마케팅에 나서 짧은 기간 괄목할 수준의 판매고를 올렸다. 얌샘김밥과 협업을 확장해 영암쌀의 브랜드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얌샘김밥이 선택한 달마지쌀 새청무 품종은 전라남도가 자체 개발해 2018년부터 보급한 품종으로, 기존 '새누리'와 '청무'의 장점만을 가져왔다. 쌀알이 단단하고, 쫀득한 찰기와 함께 달달한 맛까지 겸비하고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개장 1주년' 맛뜰무안몰 매출 11억 돌파

전 상품 30% 할인

무안군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뜰무안몰'이 개장 1주년을 앞두고 누적 매출 11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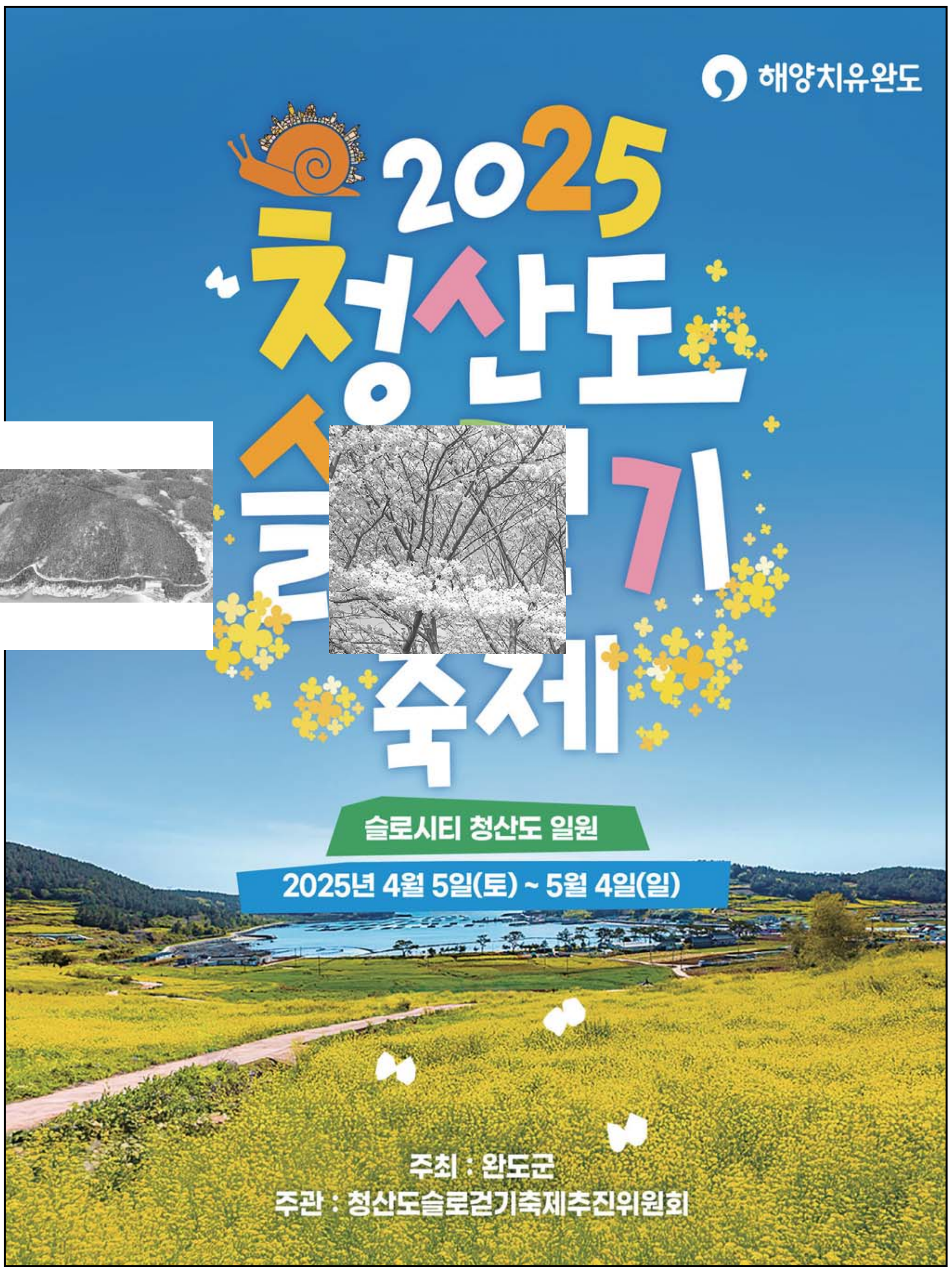
지난해 4월 말 문을 연 '맛뜰무안몰'은 양파, 쌀, 고구마, 장어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인기를 얻으며 누적 주문 2만 5000여건을 달성하는 등 전국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무안군은 이를 기념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맛뜰무안몰 개장 1주년 및 11억 원 돌파 기획전'을 개최한다.

행사기간 전 상품 30% 할인쿠폰을 1인당 3장 지급하며, 19~20일 열리는 '2025 운남에서 돈·세·고(돼지·세발나물·고구마) 놀자!' 축제와 연계한 고구마·돼지고기 40% 할인 쿠폰도 1인당 3장 지급된다.

또한 오는 11일까지 '맛뜰특가' 행사를 통해 깐마늘을 3000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4월 한 달간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 2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김산 군수는 "맛뜰무안몰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든든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1주년을 계기로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문 기자



목포, 봄꽃 절경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명소 추천

유달산·삼학도·입암산 등 꽃길따라 걸으며 여유 만끽

화사한 꽃들이 도시를 물들이며 목포의 봄이 절정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 명소들을 추천했다.

유달산은 봄의 문을 여는 수선화로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다. 노적봉에서 유달산조각공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수선화와 개나리, 벚꽃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봄 풍경을 선사한다. 특히 이 구간은 사진 촬영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봄날 인생사진을 남기기에 제격이다.

유달산 일주도로 역시 벚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어민동산에서 목포해양대학교를 지나 유달유원지로 이어지는 길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벚꽃이라는 특별한 매력을 자랑한다. 낮에는 봄바람과 함께 낭만을 즐기고, 해 질 무렵엔 벚꽃과 야경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이 또 다른 감동을 전한다.

삼학도에서는 다채로운 튤립이 화려한 색채로 봄을 수놓고 있다. 튤립 정원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연인들에게 인기 있는 산책 코스로, 삼학도 수로와 꽃이 어우러진 여유로운 공간에서 도심 속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입암산 구)동광농원 일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숨은 벚꽃 명소다.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앞 산책로를 따라 조금만 오르면, 키 낮은 벚나무가 줄지어 있어 마치 벚꽃에 파묻힌 듯한 느낌의 감성 사진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다.

/목포=김재욱 기자

완도, 산림청 '섬 숲 경관 복원 사업' 선정

신지 신리지구에 난대 상록활엽수 1만 3000여 본 식재

완도군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돼 신지 신리지구에 13억 원을 투입, 난대 상록활엽수를 식재하기로 했다.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기후변화로 식생이 쇠퇴된 도서 해안 지역의 산림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고 증진될 수 있도록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 대상지인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의 척박한 산림(13ha)에 우선 토양개량으로 생육 기반을 조성한 후 향토 수종인 황칠, 동백,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난대 상록활엽수 9종, 1만 3천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10년간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 사업을 통해 사업 전과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여 복원 효과를 분석한다.

군 관계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은 필수적이므로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 나가고 섬 숲 복원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에서 올해 사업지를 섬 숲 경관 복원 사업 모델로 제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완도=이두식 기자

'오메! 관매도에 봄 왔어라' 진도, 유채꽃 축제 내일 개막

진도군은 조도면 관매도에서 봄의 향기 가득한 '보배섬 유채꽃 축제'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열린다고 밝혔다.

'오메! 관매도에 봄 왔어라'란 슬로건(구호)으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관매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의 정취와 함께 특별한 체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채꽃 축제는 지난해 9개소에서 열리던 것과 달리 주무대를 관매도로 변경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만개한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 명당(포토존)과 관매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장터,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관매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은 축제 기간에 여객선을 증편 운행해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매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도=박재영 기자